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47:8-11
2026 년 7 월 26 일 오전 11 시

재앙의 근원

< 주여 도우소서 >

욥기는 의인도 고난과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욥은 아무런 죄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열 명의 자녀까지 잃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만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 1:18-19). 일곱 아들과 세 딸이 형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갑자기 불어온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 죄인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앙이 죄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재앙은 분명히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한 날에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삼상 4:11).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불행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 네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삼상 2:29-34). 엘리의 가장 큰 죄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는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을 자기 자녀들을 위해 취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형식만 남기고, 자신과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가져가는 삶이었습니다.

1.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운 죄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은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삼상 2:13-14).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배자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인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특별한 몫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혼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레 7:3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합법적으로 받을 몫을 정해 주셨으나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세 살 갈고리, 곧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솥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구별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몫부터 챙겼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삼상 2:15).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린 후 정해진 몫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를 무시하고 날고기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거절하였지만, 자, 제사장들은 힘으로 빼앗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삼상 2:16). 홉니와 비느하스의 죄는 단순히 제물을 탐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거룩한 제사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삼상 2:17). 그러나 이 모든 악은 홉니와 비느하스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의 죄를 알고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삼상 3:13).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루아침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죽었으며, 엘리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사십 년이었더라”(삼상 4:18). 이처럼 성경은 모든 재앙이 반드시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임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재앙을 당합니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사 47:9).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두 가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와 남편은 여인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여인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주술과 마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주술과 주문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행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나 뿐이라”는 교만의 죄

그러나 이 여인은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사 47:8). 이 여인은 사치와 평안 속에서 자신을 절대화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재앙도 자신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여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사 47:10-11).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여인의 악행 자체만이 아니라, 그 악행의 뿌리에 있는 마음의 교만입니다. 이 여인에게 재앙이 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여인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반복됩니다. 8 절에서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고, 10 절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까? 이 말은

원래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선언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사 45:6).

하나님께서서는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기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만 속한 자리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임한 재앙의 가장 깊은 원인은 단순히 악한 행동 몇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악행의 뿌리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을 의지하는 인간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재앙을 당한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사 47:5). 이 여인은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처녀 딸”이라고 불렸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사 47:1). 처녀 딸 바벨론은 아직 누구에게도 정복되지 않은 강대한 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힘과 영광을 의지하며 마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신분을 완전히 뒤바꾸십니다. 한때 여러 왕국의 여주인으로 불렸던 바벨론이 이제는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사 47:5). 여주인은 더 이상 여주인이 아닙니다. 멧돌을 돌리는 여종의 신세가 됩니다. “멧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사 47:2). 한편, 바벨론은

자신이 영원히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사 47:7).

3. 교만은 패망, 겸손은 복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자신들의 악행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고 지나친 교만과 잔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사 47:6).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늙은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지우며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바벨론은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처녀 딸 시온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여주인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사 47:8, 10). 이 말은 하나님께만 속한 선언입니다. 피조물인 바벨론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그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렘 50:29). 바벨론의 재앙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재앙의 근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과 거만한 마음의 끝에는 반드시

넘어짐과 멸망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벨론은 결국 하루아침에 여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티끌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자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잠시 많은 것을 얻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6:19).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얻는 성공과 재물은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무너짐과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16:2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을 피하는 길은 우리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처럼 “나뿐이라”고 자신을 높이는 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